

# 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인재 양성

### 전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 디바이스 창작문화 확산 아이디어 발굴 캠프 각각 개최

전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사물인터넷(IoT)산업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나섰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청년창업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키로 했다.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사물인터넷(IoT) 관련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 창작문화 확산 캠프'와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캠프'를 각각 개최한다.

먼저, 시는 전주동초등학교 5~6학년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20일과 21일, 오는 7월 3일과 4일 총 4일간에 걸쳐 '스마트 디바이스 창작문화 확산 캠프'를 진흥원 내 K-ICT 디바이스랩'에서 진행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4차산업 관련 다양한 진로 체험이 가능한 코딩교육과 RC카 제작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등 초보자들도 쉽게 사물인터넷 센서 활용부터 네트워크 구성, RC카 작동을 실습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전주시는 전주동초등학교 5~6학년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20일과 21일 '스마트 디바이스 창작문화 확산 캠프'를 진행한다.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흥원은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지역 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북대 재학생 35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캠프'도 진행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첫날 사물인터넷 기술의 개요와 LED,가변저항,조도센서 등 다양한 부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2일차에는 릴레이 작동과 무선통신 등을 활용한 근거리통신에 대해 학습하는 '사물인터넷 창업 캠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캠프에서는 기술사업화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 시뮬레이션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기술 창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를 갖고, 경진대회를 통해 아이디어의 우수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김만영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장은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우수한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성장시키도록 지역 ICT 진흥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역 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사업화 과정을 체험하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하는 성공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전주고등학교(7월)와 용소중학교(8월), 전주대 창업지원단(8월) 등 지역 내 초·중·고대학교와 협력해 4차 산업시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물인터넷 창작문화 확산 캠프' 및 '아이디어 발굴 캠프'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3D프린팅 창작 최강자 모여라”

### 전주시, 30일까지 대회 호남지역에선 참가자 신청접수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 3D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수 아이디어와 제품 발굴에 나선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제1회 3D프린팅 창작 경진대회'의 전라·제주지역(광주 제외) 예선의 참가자를 3D상상포털(www.3dbank.or.kr)을 통해 온라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전국 각 지자체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K-ICT 3D프린팅 지역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창의적 디자인 기반의 3D프린팅 출력물 제작과 로봇·ICT기술 등과의 융합으로 구동되는 3D프린팅 출력물 제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재용 기자

대회는 공모 후 지역예선을 거쳐 우수팀을 선발하고, 각 지역 최강자들이 본선에서 맞붙는 왕중왕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 등 상장과 함께 상품이 주어진다.

또한, 본선 왕중왕전에 진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미래부장관상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등 상장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 대한 사항은 K-ICT 3D프린팅 전북(전주)센터(063-281-416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전주시, 청년 경제생활 위한 금융프로그램 진행

### 27일 상담식 강의로

전주시는 오는 27일 전주시 청년소통공간 비비 1호점에서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을 위한 돈 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김선유 실장과 정재화 상담사가 상담식 강의를 제공한다.

시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이번 교육에 이어 앞으로도 매월 넷째 주 지역청년들의 생활여건을 강화하고 청년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경제·금융교육을 진행,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

다. 특히, 금융프로그램을 3회 이상 성실히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소비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프리미엄 재무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교육 후에는 금융상담 연계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시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청년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할 계획이며, 돈 관리를 잘하고 싶은 전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창업청년지원과 청년협력팀 (063-281-5151) 또는 URL(nav.cr.me/M9Q010)을 통해 접수한 후 무료로 참여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새내기공무원 선비문화체험교육

전주시 새내기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2016년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 3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새내기공무원 선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2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선비의 고장 전주의 다양한 예(禮)를 직접 체험토록 해 전주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문화홍보대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새내기공무원들은 의관정제를 마친 후 선비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인사하는 '사상견례', 향촌의 유지와 유생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 주연을 함께 즐기는 향촌의례 중의 하나인 '향음주례', 선비들이 편을 갈라 활쏘기를 겨루는 '향사례' 등을 체험했다. /인재용 기자

## ‘지역경제 버팀목’ 우수 향토기업 기살리기

### 전주시, 인증사업 추진키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가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향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유지해온 향토기업을 발굴, 인증하는 '우수 향토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온 향토기업인이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개사 정도를 선정해 전주 우수 향토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우수 향토기업 심사기준을 설정해 오는 7월 중 공개모집에 나서며, 최종 인증기업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다. 우수 향토기업 인증기간은 5년이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규모는 작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과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지속 전개

키로 했다.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북지역혁신센터는 이달 중 글로벌 스타기업 2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리더 기업을 꿈꾸는 전주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 예정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향토기업은 오랜기간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뤄왔다"면서 "우수 향토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세계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